

이슈브리핑 vol.333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

연구책임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think
J 전북연구원

요약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전북 청년 삶 파악의 필요성과 중요성

- 통계자료 기반의 현황 분석은 전북 청년 삶의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논의를 사실·증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대상, 수단 설계의 타당성을 높임. 이는 제한된 재정·행정역량 속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며 청년정책 수립의 논리적 출발점이 됨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

- (인구 현황) '24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만19~39세)는 405,418명(전체인구의 23.1%), '15년 대비 75,045명(-15.6%) 감소로 전국 평균 감소율(9.9%) 보다 감소세 빠름. 전주·완주·익산·군산 순으로 청년 비중이 높고, 진안·순창·장수 등은 청년인구가 3천 명 내외로 규모 자체가 작음. 청년 순유출 7,973명(순이동률 -2.1%)으로, 유출이 20대에 집중되고 여성 순유출 규모가 큼. 2050년 전북 청년인구는 2024년 대비 49.8% 감소 전망
- (일자리와 경제적 현황) '24년 청년고용률은 60.8%로 '15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전국평균(65.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여성고용률(56.3%)은 남성(64.7%)보다 8.4%p 낮아 성별 격차가 뚜렷함. 청년실업률은 3.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25~2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청년 월평균 임금은 약 234만원으로 전국평균(270만원)의 86.7% 수준이며, 임금 분포는 200~300만원 미만 구간이 47.1%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함
- (결혼·육아 현황) '24년 청년 혼인상태는 미혼 73.7%이며 조혼인율은 3.7건(천명당)으로 '15년(4.9) 대비 하락했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0세, 여성 31.16세로 상승 추세임.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1.6%, 주택 소유율은 48.5%이며, 유자녀 비율 62.1%, 평균 출산자녀 수 0.9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장기적으로 유자녀 비중이 감소세를 보임. 육아휴직자는 '15년 대비 '24년 약 91% 증가(6,373명)했고, 남성 비중은 24.6%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음
- (가구·주거 및 사회적 관계 현황) '24년 청년의 부모동거율 56.0%로 전국평균(54.4%)보다 높으며,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중은 68.6%이고, 청년여성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소진경험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됨. 삶의 만족도는 6.76점(10점 기준)으로 '22년 대비 소폭 하락함

전북 청년의 삶에 대한 영역별 정책적 시사점

- 통계로 확인된 전북 청년의 삶은 청년 인구 감소와 20대·여성 중심의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소득·주거·정신건강 지표 전반에서 불안정성이 함께 관찰됨. 이러한 결과는 청년 정책이 단기적 인구 유입이나 개별 지원 확대보다는 청년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점검·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청년 고용률은 개선되었으나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거 독립 지표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남. 이는 취업 여부 중심의 정책 접근만으로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결혼·출산 관련 지표는 주거 소유 여부와 소득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개인의 가치관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양상을 나타남. 이는 가족 형성과 관련된 정책이 인식 개선 중심을 넘어 생활 여건과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여성과 취업 준비기 청년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소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청년 정책에서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삶의 요소로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1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전북 청년 삶 파악의
필요성과 중요성

»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진단의 필요성

- 청년 정책은 청년층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인구 규모와 순이동, 고용과 소득, 주거·건강·관계 등 주요 영역별 수준과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통계 기반의 분석 과정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진단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됨
- 특히 전북지역 청년의 삶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다각적인 종합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분석 시에는 규모(얼마나 많은 청년이 영향을 받는가), 추세(개선, 악화, 정체 여부), 그리고 격차(집단 및 지역 간 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러한 분석은 정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정책 수단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함
- 결국, 통계 자료 기반의 전북 청년 현황 분석은 '전북 청년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청년 정책의 진단, 실행,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통계 기반 분석의 중요성

- 한편, 통계 자료 활용은 청년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함. 제한된 재정과 행정역량 속에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배분은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임. 이때 통계 자료는 청년 문제와 현상에 대한 규모, 추세, 격차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함
- 또한, 통계 자료는 단순한 현황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처한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을 필요 영역에 집중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됨. 따라서 영역별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는 현황 분석은 모든 청년 정책 도출 전 과정의 핵심적인 근거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통계 자료에 근거한 전북지역 청년의 영역별 현황 진단은 단순한 현황 제시를 넘어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자리매김해야 함. 더불어 청년 정책 시행 전 통계 기반의 객관적인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 달성을도를 측정, 평가하며, 사후 평가와 환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년 정책이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 및 고도화될 수 있는 체계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함

2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

» 활용된 통계 자료의 개요

- 청년의 연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18~39세이나, 통계청의 구축된 통계 자료마다 연령 범위와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지표별 다양한 출처로 작성 연도에도 차이가 있음
- 전북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 생산·공유된 행정 및 조사 자료 활용
 - 총 4개 영역의 11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국가 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지역별고용조사」, 「신혼부부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국무조정실의 「청년삶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함

1) 청년인구의 통계 현황

[1] 청년인구 규모 및 비중

- (전북도 청년인구·비중) '24년 기준 405,418명, '15년 대비 75,045명(-15.6%) 감소, 청년비중 -3.1% 하락
 - 전북 전체 인구 9년간 -4.1% 감소 대비 청년인구 -15.6% 감소. 이런 청년인구 감소폭은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폭(-9.9%) 보다 더 가파름
 - 전북 청년비중은 전국평균 대비 모든 연도에서 낮아 구조적으로 청년층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더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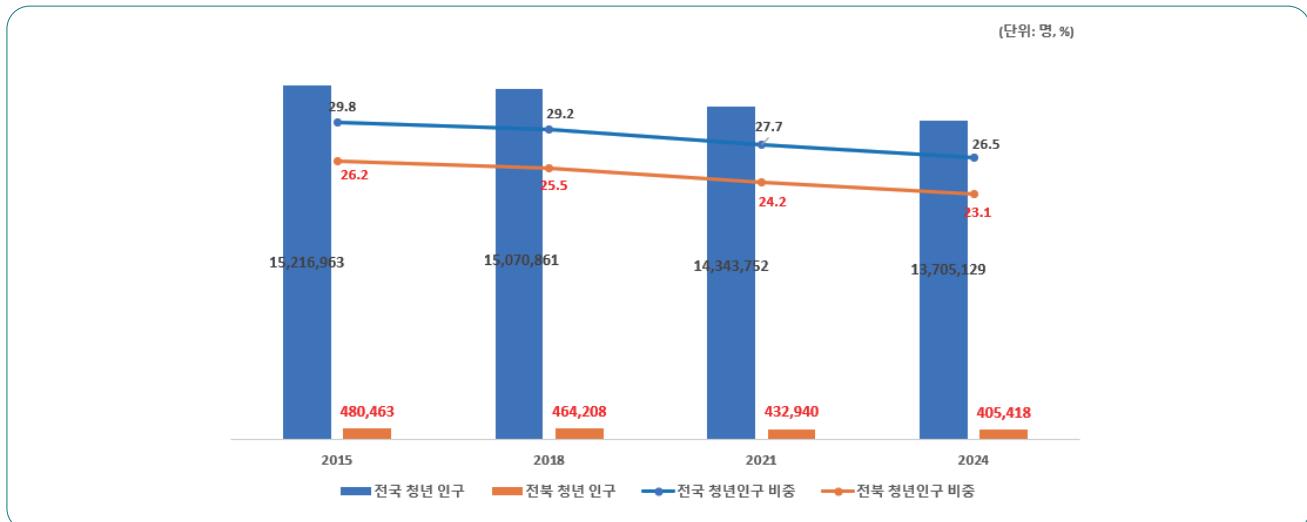
[표 1] 전북 청년인구 규모 및 비중 추이(2015~2024)

(단위: 명, %)

연도	전국			전북		
	전체 인구	청년 인구	비중	전체 인구	청년 인구	비중
2015	51,069,375	15,216,963	29.8	1,834,114	480,463	26.2
2018	51,629,512	15,070,861	29.2	1,818,157	464,208	25.5
2021	51,738,071	14,343,752	27.7	1,787,053	432,940	24.2
2024	51,805,547	13,705,129	26.5	1,758,836	405,418	23.1
증 감 ('24-'15)	736,172	-1,511,834	-3.3	-75,278	-75,045	-3.1
증감률 ('24-'15)	1.4	-9.9	-11.1	-4.1	-15.6	-11.8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청년 인구 비중 = (지역 청년(만 19~39세)인구÷지역 전체 인구)×100

[그림 1] 연도별 전북 청년인구 규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활용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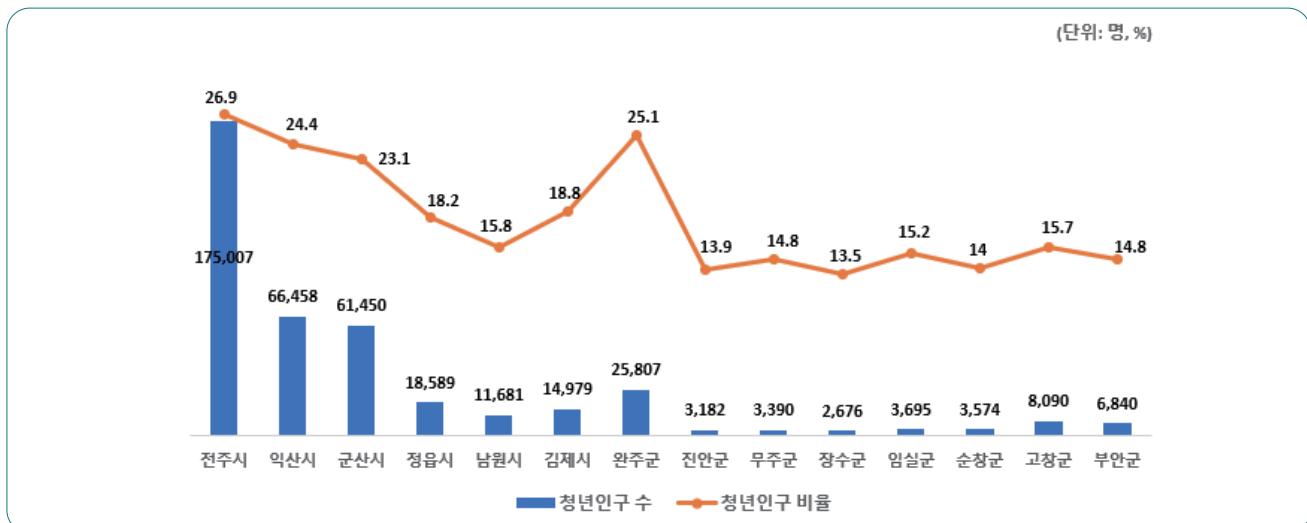
- (시군별 청년인구·비중) 전북 청년인구의 74.7% (302,915명)가 도시권(전주, 익산, 군산)에 초집중

- 청년인구의 175,007명(전체청년의 43.2%)이 전주 거주, 전북 청년의 74.7%가 전주/익산/군산지역 거주
- 청년비중 상위지역은 전주(26.9%), 완주(25.1%), 익산(24.4%), 반면 청년비중 하위지역은 장수(13.5%),

진안(13.9%), 순창(14.0%)으로 청년인구가 3천명 내외에 불과

- 전주 청년인구(175,007명)는 2위인 익산시 (66,458명)의 약 2.6배, 완주군(25,807명)의 약 6.8배에 달함

[그림 2]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19~39세) 현황(2024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활용 연구진 작성

[2] 청년인구 순이동 동향

○ (순유출 규모) 청년 순이동은 지속 순유출로 고착, '24년 청년유출 7,973명, '15년 대비 1,431명 증가

- '18년 순유출 규모(-12,417명)와 순이동률(-2.7%) 최악 기록 뒤, '21년 다소 완화, '24년 여전히 큰 폭의 순유출(-7,973명, -2.1%) 지속
- '24년 기준, 여성 순유출(-8,666명, -4.95%)이 남성(-7,709명, -3.87%)보다 크고, 특히 20대 초중반 여성의 지역 이탈이 크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19~24세 -4,381명(-4.1%), 25~29세 -2,930명(-3.1%)으로 20대 유출 집중, 30대부터 순유출 급격히 완화. 이에 주된 정책 대상을 20대 청년층으로 설정하여 순유출을 완화해야 함

○ (전출입 현황) '15년→'24년 동안 총전입(-18,701명)과 총전출(-17,270명) 모두 감소했으나, 순유출은 확대

- '15년에서 '24년 동안 청년 이동 자체는 줄었으나, 순유출은 1,431명 더 확대됨
- 연령대별로 25~29세 전출입이 가장 활발(전입 24,861명, 전출 27,7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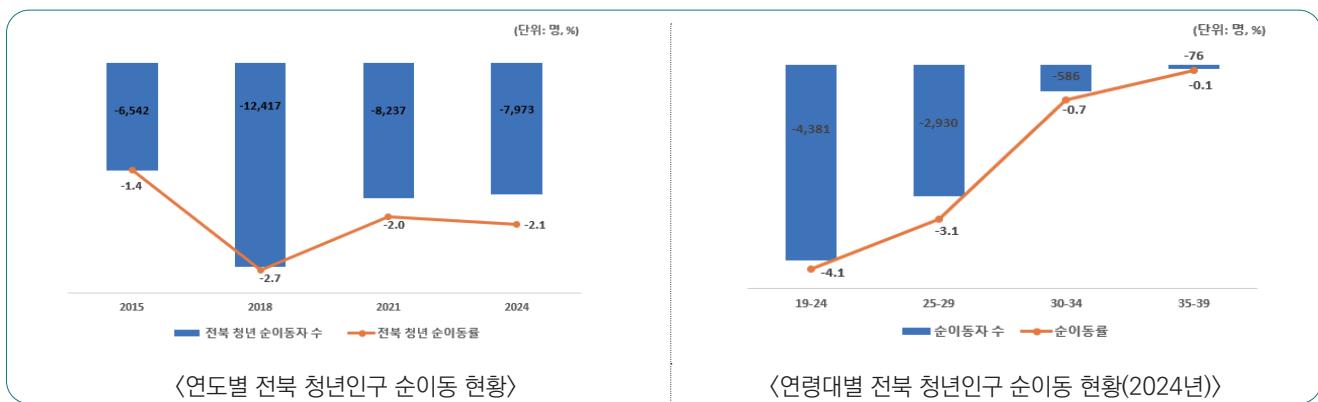
[표 2] 전북 청년 인구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 추이(2015~2024)

연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자 수	순이동률
2015	100,876	107,418	-6,542	-1.4
2018	93,231	105,648	-12,417	-2.7
2021	91,216	99,453	-8,237	-2.0
2024	82,175	90,148	-7,973	-2.1
증감('24-'15)	-18,701	-17,270	-1,431	-0.7
성별 (2024)	남성	79,041	-7,709	-3.87
	여성	72,501	-8,666	-4.95
연령대별 (2024)	19~24	21,608	-4,381	-4.1
	25~29	24,861	-2,930	-3.1
	30~34	21,220	-586	-0.7
	35~39	14,486	-76	-0.1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주) 순이동 = 총전입-총전출, 순이동률 = (19~39세 순이동자수 ÷ 19~39세 연장인구) × 100%

[그림 3] 전북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활용 연구진 작성

○ (주요 전입사유) '15년 대비 '가족사유' 전입은 2,756건 감소, 직업사유 전입은 944건 증가

- 교육(1,803건 → 4,570건), 주거환경(1,013건 → 2,934건), 기타(2,802건 → 4,036건) 사유 전입도 증가, 주택(9,746건 → 9,661건), 자연환경(482건 → 430건) 사유 전입은 소폭 감소

- 연령대별 전입 사유의 경우, 20대는 교육·직업 사유 전입이 '15년 대비 각각 2,793건, 2,142건 증가했으나 가족사유 전입은 -293건 감소함. 30대는 가족·직업 사유 전입이 '15년 대비 각각 -2,463건, -1,198건 감소한 반면, 주거환경 사유 전입은 소폭 증가함

[표 3] 전북 청년 전입 사유 현황(2015~2024)

(단위: 전입신고 건수)

전입사유별		연도				증감('24-'15)	
		2015	2018	2021	2024		
직업		16,575	16,242	21,288	17,519	944	
가족		22,217	19,739	19,596	19,461	-2,756	
주택		9,746	8,643	9,723	9,661	-85	
교육		1,803	2,310	3,801	4,570	2,767	
주거환경		1,013	1,613	2,948	2,934	1,921	
자연환경		482	491	593	430	-52	
기타		2,802	4,003	5,028	4,036	1,234	
연령대별	20대	직업	8,698	9,480	13,456	10,840	2,142
		가족	11,781	10,995	11,765	11,488	-293
		주택	3,818	3,646	4,863	4,427	609
		교육	1,553	2,106	3,564	4,346	2,793
		주거환경	530	919	1,813	1,819	1,289
		자연환경	217	232	292	203	-14
		기타	1,297	2,018	2,790	2,312	1,015
	30대	직업	7,877	6,762	7,832	6,679	-1,198
		가족	10,436	8,744	7,831	7,973	-2,463
		주택	5,928	4,997	4,860	5,234	-694
		교육	250	204	237	224	-26
		주거환경	483	694	1,135	1,115	632
		자연환경	265	259	301	227	-38
		기타	1,505	1,985	2,238	1,724	219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연령구분은 원자료 데이터 분류체계 적용

- (시도별 전입 전 거주지) 전북지역으로 전입한 청년 대부분의 이전 거주 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임
 - 전북 전입 청년의 주요 이전 거주지는 1위 경기(5,124명), 2위 서울(4,765명), 3위 광주광역시(2,878명)임

이는 전북 전입 청년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U턴(귀환) 혹은 J턴(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 인구임을 나타냄

- 타지역은 인접시도 중심으로 청년 전입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전북은 수도권(경기, 서울 등)이 압도적 상위

[표 4] 시도별 청년 전입 전 거주지 현황(2024년)

(단위: 명)

전입 시도명	전입 전 거주지		
	1위	2위	3위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11,163명)	서울특별시 (7,770명)	인천광역시 (1,890명)
경기도	서울특별시 (139,876명)	인천광역시 (28,976명)	충청남도 (16,011명)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21,406명)	서울특별시 (6,223명)	경기도 (5,927명)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17,229명)	경기도 (6,869명)	서울특별시 (5,912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2,175명)	서울특별시 (3,897명)	경기도 (3,318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9,620명)	서울특별시 (5,454명)	경기도 (4,729명)
대전광역시	경기도 (7,629명)	충청남도 (7,232명)	서울특별시 (6,761명)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1,242명)	서울특별시 (7,474명)	경기도 (5,810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120,255명)	인천광역시 (19,938명)	부산광역시 (12,291명)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4,152명)	경기도 (2,439명)	서울특별시 (2,297명)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5,677명)	경상남도 (3,514명)	경상북도 (3,391명)
인천광역시	경기도 (32,348명)	서울특별시 (23,118명)	충청남도 (3,146명)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11,788명)	경기도 (4,141명)	서울특별시 (3,872명)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 (5,124명)	서울특별시 (4,765명)	광주광역시 (2,878명)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3,192명)	경기도 (3,010명)	부산광역시 (948명)
충청남도	경기도 (16,266명)	서울특별시 (9,001명)	대전광역시 (6,813명)
충청북도	경기도 (9,493명)	서울특별시 (6,020명)	대전광역시 (4,224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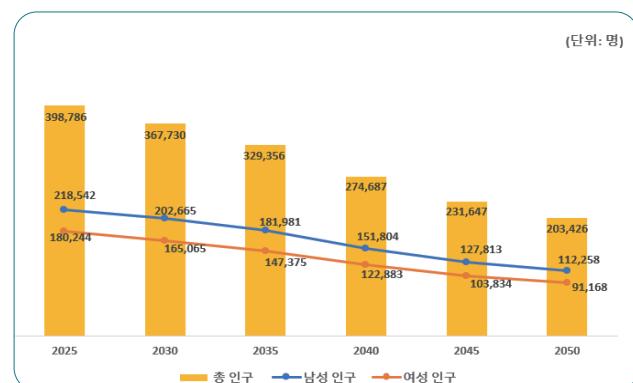
주) 연령대 5세 단위로 구분된 자료상의 한계로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함

[3] 장래 청년 인구 추계

- (장래 청년인구 규모) 25년 후 현 청년인구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24년(405,418명) 대비 약 201,992명 (-49.8%) 감소

- 청년인구는 지속 감소세. '25년 398,786명에서 '30년 367,730명으로 31,056명(-7.8%) 감소하고, 이후에도 5년마다 약 3~4만명씩 꾸준히 감소 전망
- 성별로 남성은 '25년 대비 106,284명(-48.6%) 감소, 여성은 89,076명(-49.4%) 감소 전망. 이는 성별 어느 한 쪽 문제가 아닌 청년층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

[그림 4] 전북 장래 청년인구 추계(2025~2050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활용 연구진 작성

주) 중위추계(출생-사망-이동(국내, 국제)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 활용

2) 청년 일자리와 경제활동의 통계 현황

[1] 고용률 및 실업률

○ (고용률) '24년 청년 고용률은 60.8%, '15년 대비 9.9%p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65.3%)보다 낮음

- 성별로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56.3%로, 남성(64.7%)보다 약 8.4%p 낮았는데, 이는 전국 여성 평균(63.0%)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임
- 연령대별로는 30~34세의 고용률이 84.1%로 가장 높았으며(전국 평균 대비 1.6%p 높음), 35~39세(79.8%), 25~29세(70.5%) 순으로 이어짐

○ (실업률) '24년 청년 실업률은 3.1%, 전국 평균(3.5%)보다 낮으나 '15년 대비 1.3%p 증가함

- 성별로는 청년남성 실업률은 2.9%로 낮은 편이지만(전국 평균 3.8% 대비 0.9%p 낮음), 청년여성은 3.3% 수준임
- 연령대별로는 25~29세의 실업률이 5.3%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국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5] 전북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15~2024)

(단위: 천 명, %, %p)

구분	고용률				실업률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연도	2015	8,992	57.3	256	50.9	505	3.2	9	1.8
	2018	9,055	59.2	247	51.9	589	3.9	9	1.9
	2021	8,853	61.2	238	55.2	469	3.2	11	2.6
	2024	8,833	65.3	237	60.8	474	3.5	12	3.1
증감('24-'15)		-159	+8.0	-19	+9.9	-31	+0.3	+3	+1.3
성별	남성	4,751	67.4	134	64.7	266	3.8	6	2.9
	여성	4,082	63.0	103	56.3	208	3.2	6	3.3
연령대	18~19세	95	10.6	2	3.6	7	0.8	0	0.0
	20~24세	944	34.8	27	29.7	84	3.1	2	2.2
	25~29세	2,392	71.5	67	70.5	198	5.9	5	5.3
	30~34세	2,826	82.5	74	84.1	118	3.4	3	3.4
	35~39세	2,576	81.9	67	79.8	67	2.1	2	2.4

주 : 전국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자료에 시도 가중치 사용. 고용률 = 취업자/전체 청년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전체 청년인구×100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그림 5] 청년 고용률 추이(2015~2024)



[그림 6] 청년 실업률 추이(2015~2024)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및 종사 직업·산업

○ (종사상 지위) '24년 임금근로자 85.7%, 비임금근로자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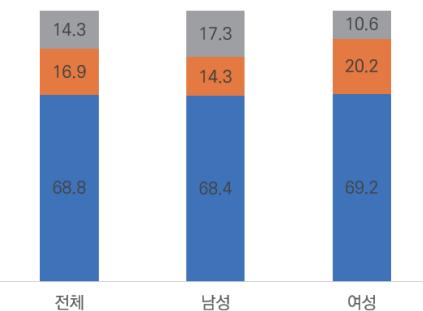
-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14.3%, 임금근로자는 85.7%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68.8%, 임시·일용근로자는 16.9%임

- 성별로는 남성은 비임금근로자(17.3%), 여성은 임시·일용근로자(20.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임금근로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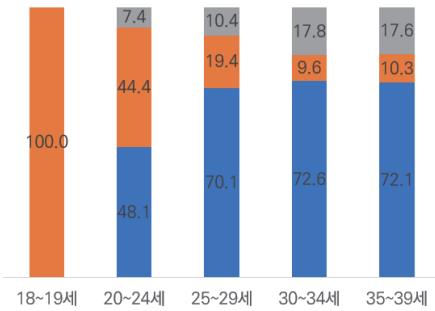
[그림 7]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
■ 비임금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그림 8] 연령대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
■ 비임금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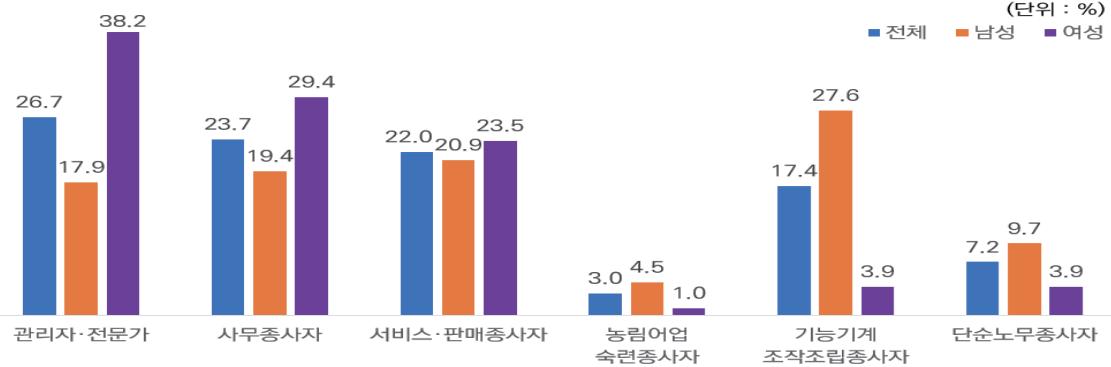
○ (종사 직업) '24년 관리자·전문가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종사 직업 비중의 차이를 보임

- 관리자·전문가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종사자 23.7%, 서비스·판매종사자 22.0%,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 17.4%, 단순노무종사자 7.2%, 농림어업 속련종사자 3.0%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비중이 38.2%로 남성(17.9%)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남성은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가 27.6%로 가장 많았고, 여성에 비해 20%p 이상 높았음

[그림 9] 청년 취업자 성별 종사 직업

(단위 : %)
■ 전체 ■ 남성 ■ 여성



○ (종사 산업) '24년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5.1%로 가장 많음

- 종사 산업은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1.1%, 광제조업 17.7%, 전기운수통신금융 8.9%, 농림어업 3.8%, 건설업 3.4%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과반 이상인 58.3%가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남성은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24.6%로 여성(8.7%)보다 15.9%p 높게 나타남

[그림 10] 청년 취업자 성별 종사 산업



[3] 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현황

○ (월평균 임금) '24년 취업자의 약 47.1%는 월평균 200만원대의 임금을 받음

-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47.1%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300만원~400만원 미만 25.0%, 400만원 이상 13.7%, 100만원~200만원 미만 8.3%, 100만원 미만 5.9%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임금 구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약 234만원으로, 전국 평균(270만원)의 약 86.7% 수준임. 전국 평균 대비 전북이 남녀 모두 고임금 구간의 비중이 낮았으며, 25~29세 연령대 이후로 월평균 임금 수준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

[표 6] 전북 청년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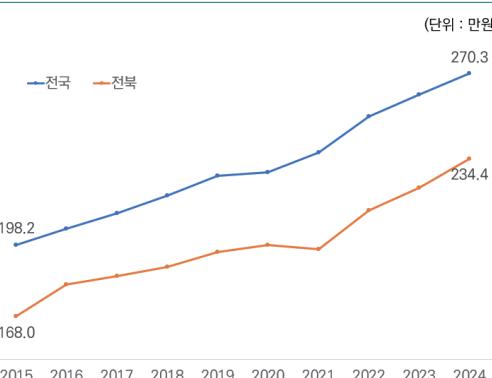
(단위: 만원, %)

구분		전국	전북	비교	
				차이(전북-전국)	전국 대비 비중
연도	2015	198.2	168.0	-30.2	84.8
	2018	218.8	188.7	-30.1	86.2
	2021	236.9	196.3	-40.6	82.9
	2024	270.3	234.4	-35.9	86.7
증감('24-'15)		+72.1	+66.4		
성별	남성	294.6	249.6	-45.0	84.7
	여성	242.0	214.7	-27.3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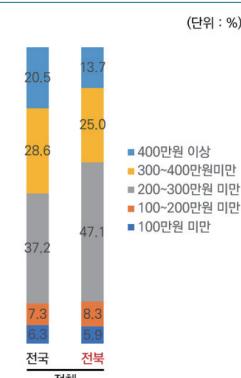
구분	전국	전북	비교	
			차이(전북-전국)	전국 대비 비중
연령대	18~19세	94.9	119.6	+24.7 126.0
	20~24세	169.9	179.1	+9.2 105.4
	25~29세	255.1	219.9	-35.2 86.2
	30~34세	286.3	238.6	-47.7 83.3
	35~39세	310.0	270.1	-39.9 87.1

주 : 전국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자료에 시도 가중치 사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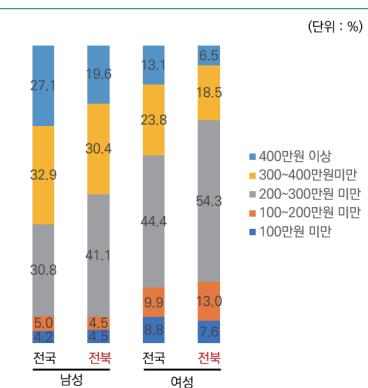
[그림 11] 청년 월평균 임금 추이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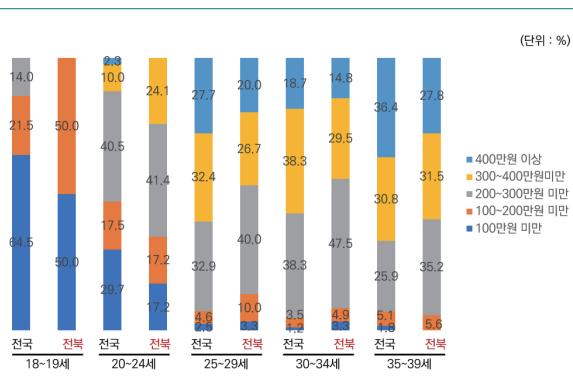
[그림 12] 월평균 임금 구간별 분포, 2024년



[그림 13] 성별 월평균 임금



[그림 14]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 (실업급여 수급 현황*) '24년 실업급여 수급 인원 15,349명, 1인당 수급 금액 6,366천원

* 연령이 10세 단위로 구분된 자료상의 한계로 18~19세를 제외한 20~39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함

-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4년 15,349명으로, 1인당 수급 금액은 약 6,366천원 수준임

- 성별로는 여성이 8,505명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1인당 수급 금액도 여성(6,452천원)이 남성(6,259천원) 보다 약 193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899명으로 30대(7,450명)보다 많았으나, 1인당 수급 금액은 30대가 6,542천원으로 20대(6,200천원)보다 많았음

- 광역 도 단위 중에서 수급 인원이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5번째로 많으며, 1인당 수급 금액은 제주, 충남, 충북, 경기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전북 청년 실업급여 수급 현황, 2024년

(단위: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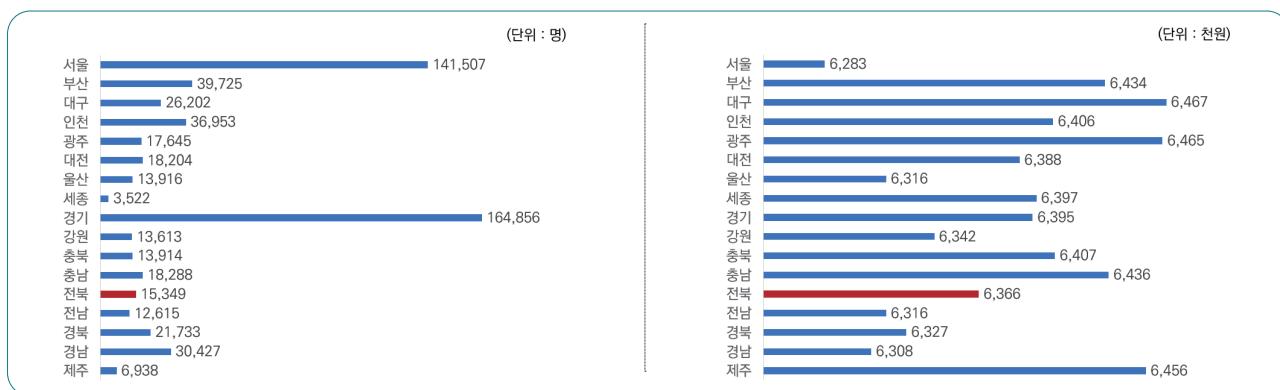
구분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 금액
지역	서울특별시	141,507	889,075,922
	부산광역시	39,725	255,601,334
	대구광역시	26,202	169,449,340
	인천광역시	36,953	236,721,024
	광주광역시	17,645	114,069,078
	대전광역시	18,204	116,290,484
	울산광역시	13,916	87,900,155
	세종특별자치시	3,522	22,531,644
	경기도	164,856	1,054,266,797
	충청북도	13,914	89,148,438
	충청남도	18,288	117,694,914
	전라남도	12,615	79,676,073
	경상북도	21,733	137,499,762
	경상남도	30,427	191,921,524
성별	제주특별자치도	6,938	44,788,599
	강원특별자치도	13,613	86,330,039
연령대	전북특별자치도	15,349	97,711,273
	남성	6,844	42,838,500
	여성	8,505	54,872,773
연령대	20~29세	7,899	48,969,917
	30~39세	7,450	48,741,356

주 : 1인당 수급 금액 = 수급 금액 총액/수급 인원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5] 지역별 청년층 실업급여 수급 인원, 2024년

[그림 16] 지역별 청년층 1인당 실업급여 수급 금액,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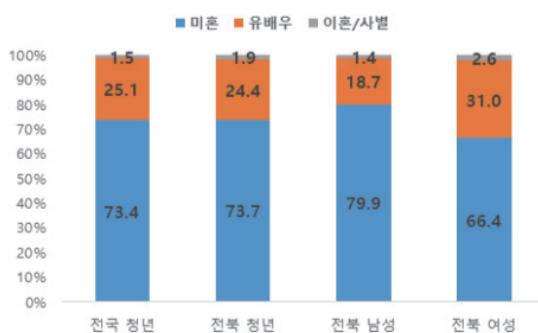
3) 청년 결혼·육아의 통계 현황

[1] 청년 혼인상태와 혼인률

○ (혼인상태) '24년 전북 청년 혼인상태는 미혼비율 73.7%, 유배우 비율 24.4%, 이혼/사별 비율 1.9%

- 청년 중 미혼비율은 전국이 73.4%, 전북이 73.7%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전북이 다소 높았음

[그림 17] 청년 성별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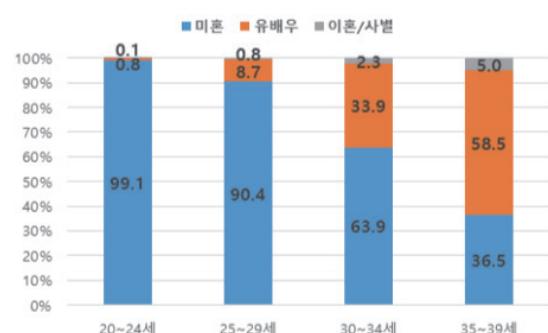
○ (혼인율) '24년 전북특별자치도 조혼인율은 3.7건으로 2015년 4.9건 대비 약 1.2건 감소

- 전북자치도의 '24년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0.7건 낮음. 14개 시군 중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군(5.1건)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임실군(2.1건)으로 나타남

- 전북 청년의 성별로는 남성 미혼비율이 79.9%, 여성 미혼비율이 66.4%로 여성보다 남성의 미혼비율이 약 13.5%p 높았으며, 유배우 비율은 남성이 18.7%, 여성이 31.0%로 여성이 약 12.3%p 높음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미혼비율은 감소하고 유배우와 이혼/사별 비율이 증가함. 20~24세의 미혼비율은 99.1%에 육박하는 반면 35~39세는 미혼비율이 36.5%, 유배우 비율이 58.5%로 유배우 비율이 과반을 차지함

[그림 18] 청년 연령별 혼인상태



- 전북자치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3.90세로 전국 평균보다 0.04세 높으며 2015년 대비 1.32세 증가하였음.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36.11세로 가장 높고, 전주시가 33.44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1.16세로 전국 평균보다 0.39세 낮으며 2015년 대비 1.76세 증가하였음. 시군별로는 남원시가 31.79세로 가장 높고, 고창군이 30.5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8] 시군별 혼인율 및 평균 초혼연령

(단위: 건, 천명당 건, 세)

구분	2015년				2020년				2024년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전국	302,828	5.9	32.57	29.96	213,502	4.2	33.23	30.78	222,412	4.4	33.86	31.55
전북 자치도	9,060	4.9	32.58	29.40	6,053	3.4	33.54	30.49	6,388	3.7	33.90	31.16
전주시	3,406	5.2	32.33	29.59	2,447	3.7	33.25	30.66	2,648	4.2	33.44	31.14
군산시	1,606	5.8	32.56	29.28	1,015	3.8	33.60	30.66	949	3.7	33.97	30.82

구분	2015년				2020년				2024년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혼인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익산시	1,544	5.1	32.09	28.98	820	2.9	33.13	30.10	931	3.5	33.77	31.55
정읍시	475	4.1	33.30	29.25	306	2.8	33.95	29.81	283	2.8	34.48	30.84
남원시	309	3.6	33.33	29.83	211	2.6	33.34	29.71	220	2.9	35.23	31.79
김제시	337	3.8	32.52	28.85	289	3.5	34.96	30.62	323	4.0	35.24	31.27
완주군	468	5.1	33.40	30.09	310	3.4	34.22	30.85	500	5.1	33.80	31.05
진안군	83	3.2	33.95	30.13	62	2.4	32.74	29.56	51	2.1	35.85	30.86
무주군	117	4.6	32.95	29.30	69	2.9	31.83	30.76	56	2.4	35.69	31.64
장수군	84	3.6	33.78	29.19	54	2.4	36.03	31.29	58	2.8	34.41	31.23
임실군	94	3.1	33.87	30.06	87	3.1	35.42	30.18	54	2.1	35.39	31.39
순창군	114	3.8	33.83	29.67	66	2.4	34.40	30.15	59	2.2	33.82	31.07
고창군	209	3.5	34.01	29.48	150	2.7	34.94	30.82	142	2.8	35.05	30.59
부안군	214	3.8	33.03	28.50	167	3.2	33.44	30.44	114	2.4	36.11	3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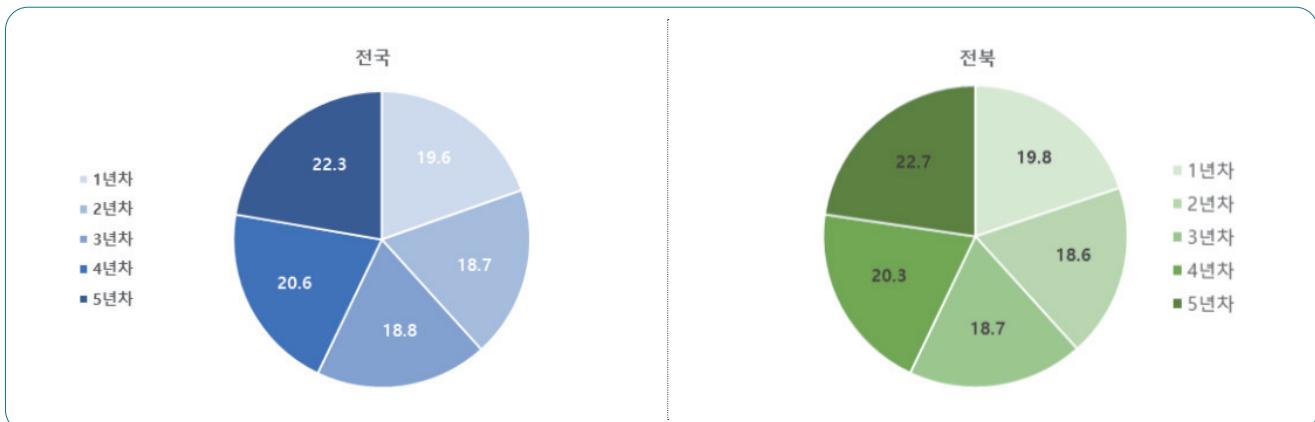
[2] 신혼부부의 현황

-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5년차가 6,223쌍으로 가장 많고, 4년차가 5,568쌍으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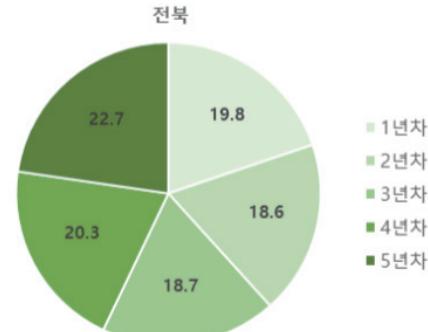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전북도 신혼부부의 혼인 연자는 1년차 19.8%, 2년차 18.6%, 3년차 18.7%, 4년차 20.3%, 5년차 22.7%로 나타났으며 연차별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김제시(23.6%)와 완주군(22.1%)의 1년차 신혼부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순창군(48.5%)과 장수군(48.6%)의 경우 4~5년차 신혼부부 비중이 절반에 가까움

[그림 19] 전국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비중



[그림 20] 전북특별자치도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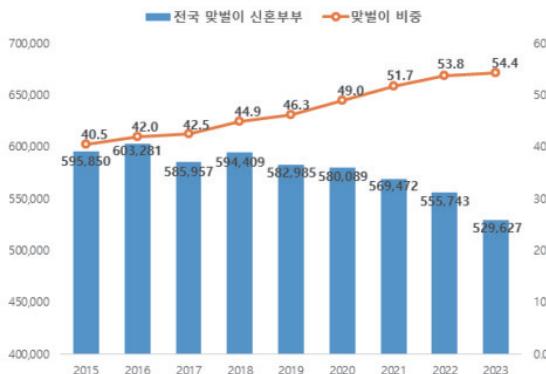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

○ (맞벌이 여부별 신혼부부 수) 맞벌이 비중 51.6%,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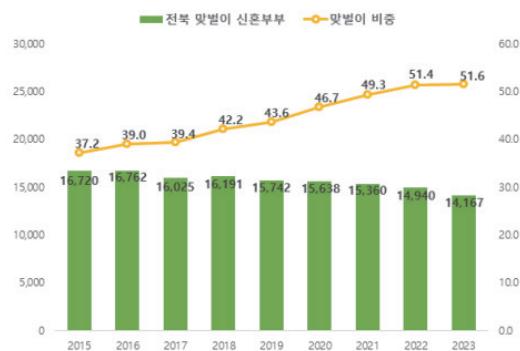
- 맞벌이 부부는 51.6%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전국 평균은 54.4%로 전국 평균보다 약 2.8%p 낮은 수준

[그림 21] 전국 맞벌이 부부 및 비중



- 전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15년 37.2%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2%p 가까이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맞벌이 부부 비중이 절반을 넘음

[그림 22] 전북특별자치도 맞벌이 부부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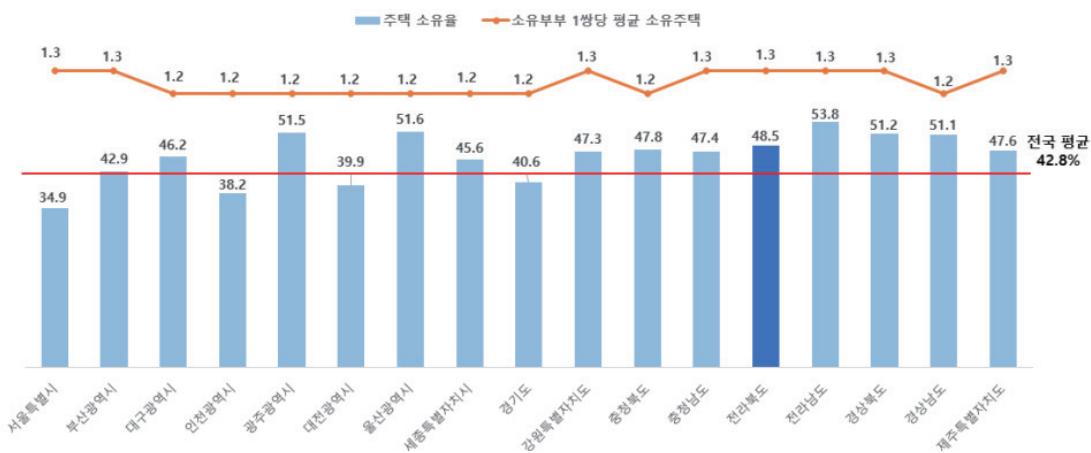
○ (주택소유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은 48.5%로, 절반 이상인 51.5%는 무주택

- 전북의 무주택 신혼부부는 51.5%로 절반을 넘었고, 주택을 소유 중인 비중은 48.5%로 전국 평균(42.8%)과 비교하면 전북의 신혼부부 주택소유율이 약 5.7%p 높음

- 2015년 전북 신혼부부 주택 소유율은 46.8%로 2023년 대비 1.7%p 낮으며 가장 주택소유율이 높았던 시기는 2020년(49.9%)으로 연도별로 등락이 있는 편임

- 주택소유 신혼부부 1쌍당 평균 소유주택은 1.3호로 나타남

[그림 23] 전국 시도[그림 23] 전국 시도별 신혼부부 주택소유율별 신혼부부 주택소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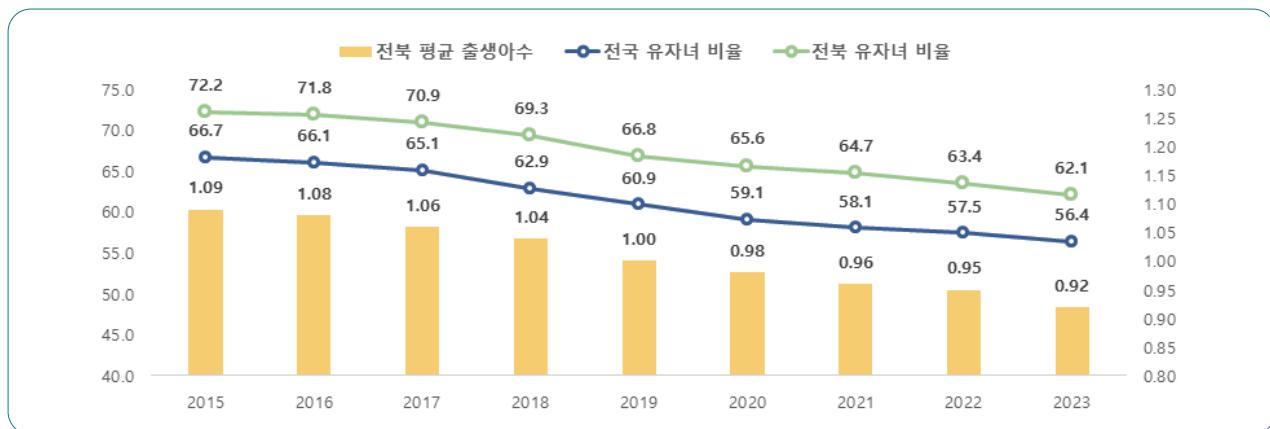


○ (출산자녀별 신혼부부 수) 무자녀 부부의 비율 37.9%,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율 62.1%

- 2023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62.1%로 전국 평균(56.4%)보다 높으나 전국과 전북 모두 2015년 이후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23년 전북의 신혼부부 평균 출산자녀 수는 0.92명으로 전국 평균(0.77명)보다 많으며, 신혼부부의 특성별로는 혼인연차가 높을수록,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주택 미소유 부부보다는 주택 소유부부가 유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출산자녀 수도 많음

[그림 24] 유자녀 신혼부부 비율 및 평균 출생아 수



[표 9] 신혼부부 특성별 유자녀 비율 및 평균 출산자녀 수(2023년)

(단위: 만원, %)

구분	전국		전북		평균 출산자녀차이 (전북-전국)
	유자녀 비율	평균 출산자녀	유자녀 비율	평균 출산자녀	
계	56.4	0.77	62.1	0.92	0.15
혼인연차별	1년차	30.6	0.42	35.9	0.54
	2년차	47.9	0.62	55.1	0.77
	3년차	58.6	0.76	66.0	0.94
	4년차	67.7	0.92	72.6	1.09
	5년차	73.9	1.05	78.0	1.22
맞벌이여부	맞벌이	53.3	0.69	60.0	0.85
	외벌이	60.5	0.84	64.4	0.97
	기타	58.0	0.93	63.8	1.11
주택소유여부	주택 미소유	51.7	0.69	57.4	0.83
	주택 소유	62.6	0.87	67.0	1.01

출처: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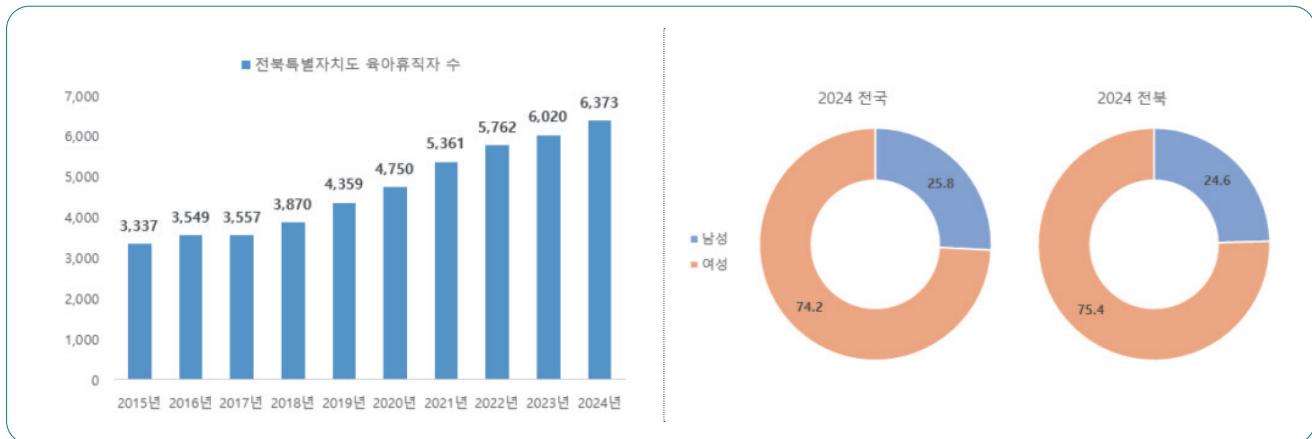
[3] 육아휴직 현황

○ (육아휴직 수와 비율) '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6,37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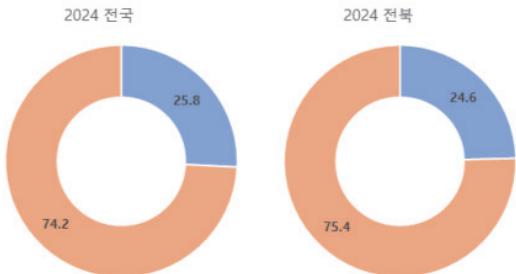
- 전북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3,337명에서 2024년 6,373명으로 약 91% 증가함.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5년 172,514명에서 2024년 306,834명으로 증가하여 약 78% 증가

- 2024년 기준 전북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4.6%로 전국 평균(25.8%)에 약간 못 미침
- 시군별로는 전주시의 육아휴직자가 2,6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주군(49.0%), 완주군(47.2%) 등임
- 2015년 대비 2024년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은 완주군으로 해당 기간 육아휴직자가 4.3배 증가하였으며 고창군도 3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림 25] 전북 육아휴직자 추이



[그림 26] 전국 및 전북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표 10] 시군별 성별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20년			2024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172,514	7,904	164,610	237,592	46,096	191,496	306,834	79,060	227,774
전북자치도	3,337	140	3,197	4,750	834	3,916	6,373	1,567	4,806
전주시	1,711	48	1,663	2,014	239	1,775	2,658	511	2,147
군산시	431	15	416	718	180	538	906	202	704
익산시	415	28	387	597	91	506	855	180	675
정읍시	150	9	141	217	37	180	271	69	202
남원시	127	11	116	145	29	116	179	38	141
김제시	100	4	96	177	22	155	284	78	206
완주군	164	15	149	412	144	268	708	334	374
진안군	39	2	37	64	14	50	47	10	37
무주군	32	3	29	35	10	25	49	24	25
장수군	18	0	18	39	8	31	44	15	29
임실군	32	0	32	70	5	65	76	20	56
순창군	27	0	27	62	19	43	61	19	42
고창군	34	1	33	89	18	71	105	36	69
부안군	57	4	53	111	18	93	130	3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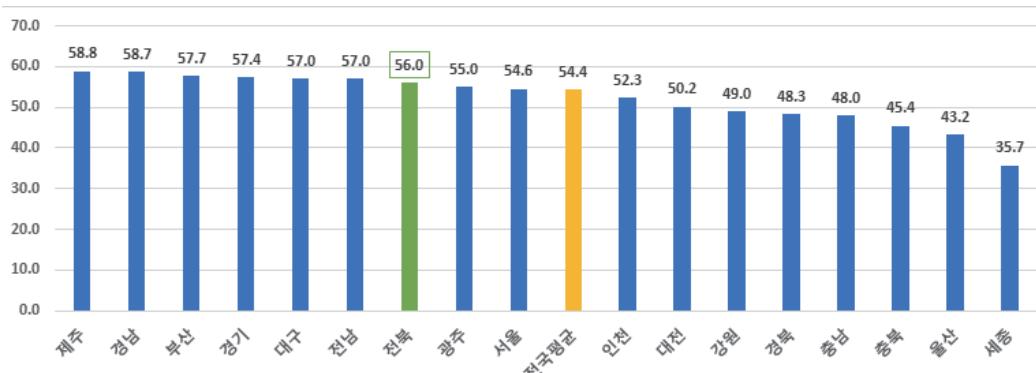
4) 청년 가구·주거 및 사회적 관계의 통계 현황¹⁾

[1] 청년 가구·주거 현황

- (부모동거 현황) '24년 기준 전북 청년의 부모 동거율은 56.0%로 전국평균(54.4%)보다 1.6%p 높음

- 부모의 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좌우되는 부모동거율은 56.0%로 100명 중 56명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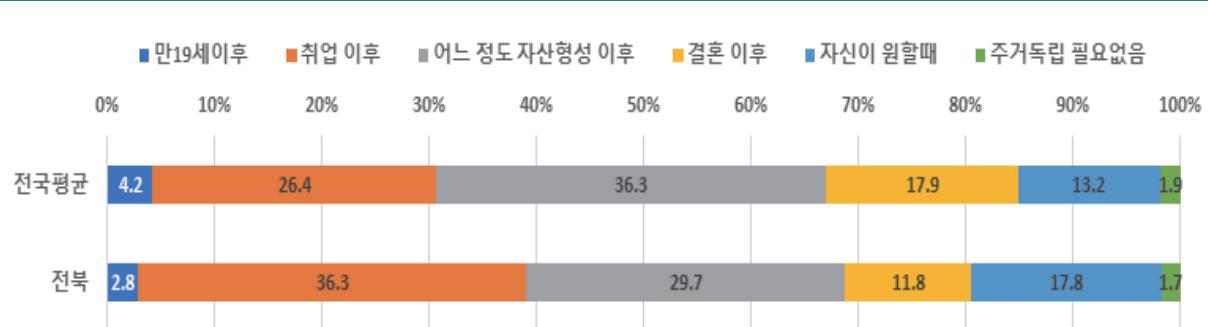
[그림 27] 전국 시도별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



- 전북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는 '취업 이후(36.3%)', '자산형성 이후(29.7%)'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전국평균과 차이를 보임

- 전북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 시기를 전국 청년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부모동거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8] 전국 및 전북 청년이 생각하는 적절한 주거 독립 시기



1)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의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해당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22년에 이어 두번째 조사임. 목표 표본은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00가구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15,098가구, 15,098명의 청년 응답이 활용됨

- (청년 가구 중 1인가구 규모) '24년 기준 전북 청년가구 100가구 중 68.6%가 1인가구

- 전북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68.6%로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임. 한편, 2인 가구 비율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임

[표 11] 전국 및 전북 청년가구의 가구 규모

(단위: 가구, %)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전국	3,304,506	2,244,848	636,671	285,301	115,426	22,260
	100.0	67.9	19.3	8.6	3.5	0.7
전북	95,480	65,526	16,568	8,394	4,061	931
	100.0	68.6	17.4	8.8	4.3	1.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

[2] 사회적 관계 현황 및 삶의 만족도 수준

- [우울증상²⁾ 유병률] '24년 기준 전북 청년 중 우울증상 유병률은 6.1%, '22년 대비 1.9%p 증가

-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4.9%p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취업준비 시기인 25~29세 유병률이 가장 높고 전국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전국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8.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의 경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그림 29] 전국 시도별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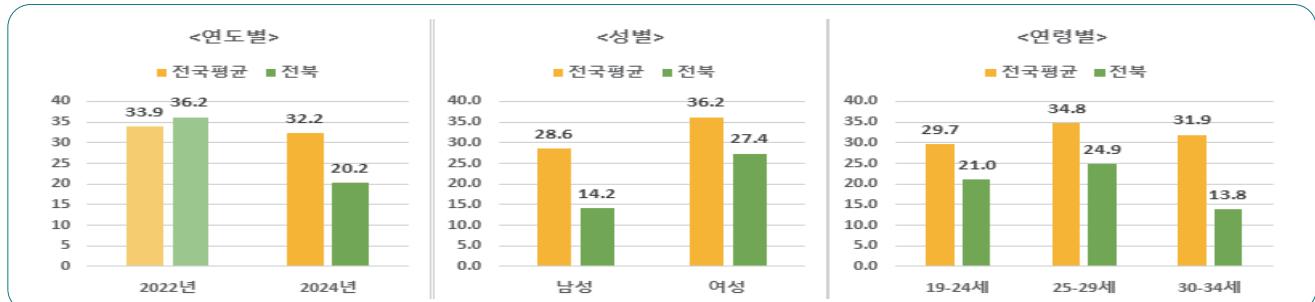
2) 우울증상은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하여 우울증상 유병률을 산출하였으며,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으로 간주함.

○ [소진(번아웃)³⁾ 경험률] '24년 기준 전북 청년 중 소진 경험률은 20.2%, '22년 대비 16.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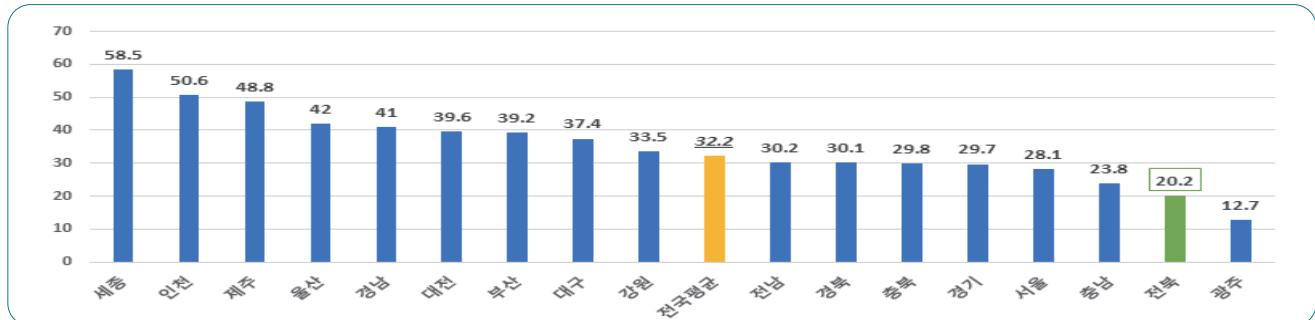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청년에 비해 여성청년의 소진 경험률이 13.2%p 더 높고, 연령별로는 취업준비 시기인 25~29세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 시도별로 세종시가 58.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의 경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그림 30]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소진(번아웃) 경험률



[그림 31] 전국시도별 청년의 소진(번아웃)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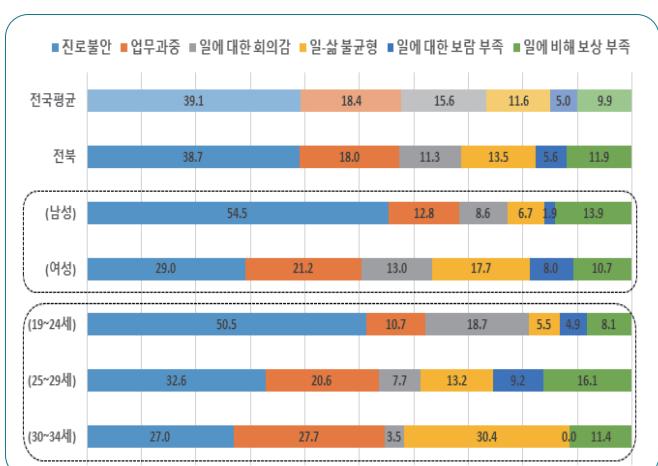


- 전북 청년들의 소진(번아웃) 이유는 진로불안 (38.7%)과 업무과중(18.0%) 순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일과 삶의 불균형, 일에 비해 낮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청년은 진로불안, 여성청년은 업무과중 및 일과 삶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불안 이유, 연령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과 업무과중을 이유로 소진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2]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3)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상태에 또는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진(Burn-out)」을 국제질병분류(ICD)에 등재함(이승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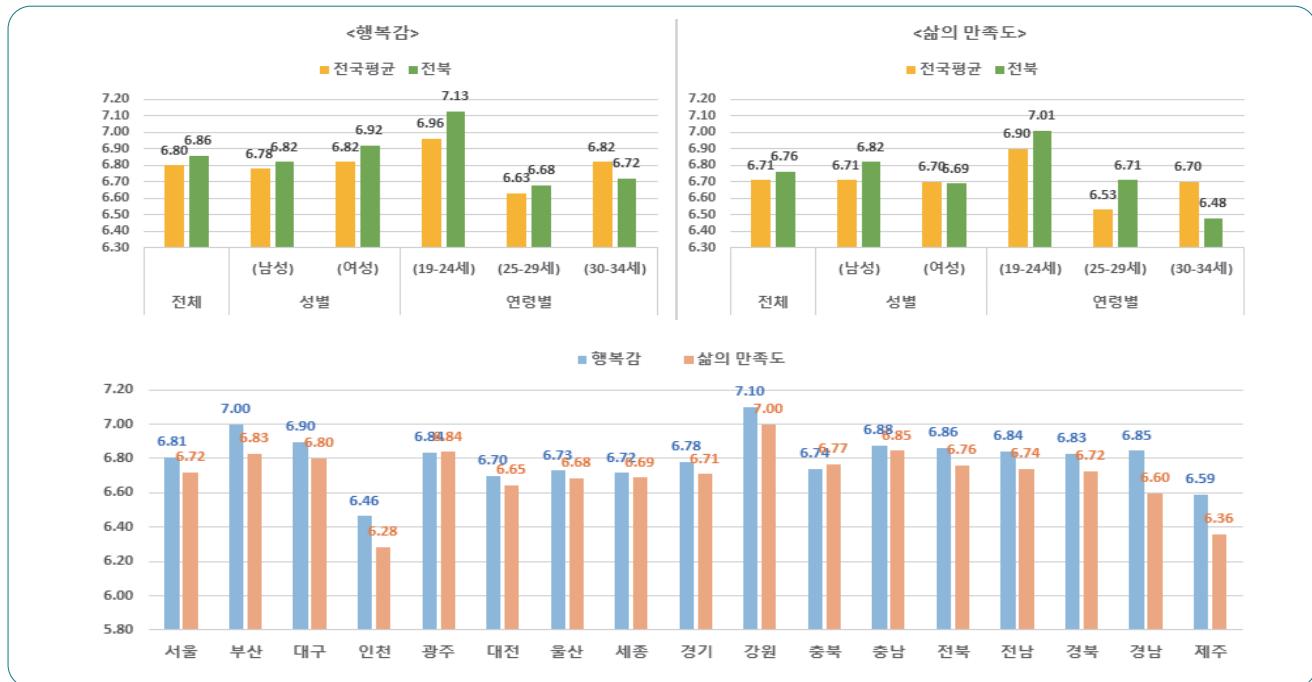
-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24년 전북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6.76점, '22년 대비 0.04점 하락

- (행복감) 전북 청년의 어제 느낀 행복감은 전국평균 보다 높았으나, 30~34세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 전북 청년의 행복감 수준은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은 7번째 순임

- (삶의 만족도) 전북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2년 (6.89점) 대비 24년 -0.04점 하락하여 전국평균(-0.09점) 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감소함

-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전북 여성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폭 낮은 반면, 남성청년의 경우 전국평균을 상회함. 연령별로는 30~34세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2.2점 낮았음

[그림 33] 전국 시도별 청년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10점 기준)



3

전북 청년의 삶에 대한 영역별 정책적 시사점

- (인구 위기와 삶의 불안정성 심화) '양적 축소'와 '질적 저하'의 이중고

- 통계로 확인된 전북 청년의 삶은 지난 10년('15~'24)간 전국 평균(-9.9%)보다 빠른 청년 인구 감소(-15.6%)와 지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소득·주거·정신건강 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특히 20대와 여성 청년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시사점] 향후 청년 정책이 단기적 지원 확대보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삶의 조건 전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 인구 문제를 단일 인구정책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생활 여건 전반과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 이탈 : 20대·여성 중심의 순유출과 정주 기반의 한계

- 전북의 청년 순유출은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래인구추계에서도 2050년까지 청년 인구의 -49.8% 감소가 전망됨
- 이는 청년 유입을 위한 단기적 인센티브보다, 지역 내 일자리·소득·생활 여건이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함
- [시사점] 청년 유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고, 정주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함

○ (고용·소득) 지표상의 개선과 체감의 괴리 :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적 미스매치

- 청년 고용률(60.8%)은 '15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월평균 임금은 약 23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6.7% 수준에 머물고, 임금 분포 또한 200~300만 원 미만 구간(47.1%)에 집중되어 있음
- 취업 여부 자체보다 소득 수준과 고용의 질이 청년의 생활 안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시사점] 청년 고용정책이 단순 취업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이후의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질적 내실화' 단계로 나아가야 함

○ (결혼·출산) 가치관보다 앞선 현실의 장벽 : 주거 및 소득 불안정이 초래한 생애 이행의 지체

- 높은 미혼 비율(73.7%)과 혼인율 하락 추세는 청년 개인의 가치관 변화보다, 주거 안정성, 소득 여건, 돌봄 부담 등 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특히 주거 소유 여부에 따라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율에 뚜렷한 차이(무주택 57.4% vs 유주택 67.0%)가 나타난다는 점은, 결혼과 출산이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선택임을 시사함
- [시사점] 결혼·출산 정책을 단일 가족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의 주거·소득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거·건강) 독립의 자연과 마음의 위기 : 높은 부모 동거율과 청년 여성·취준생의 심리적 소진

- 전북 청년의 부모 동거율(56.0%)과 1인 가구 비중 (68.6%)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여성과 25~29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우울감과 소진(Burn-out)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 독립 자연, 취업 준비 및 초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부담이 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됨
- [시사점] 청년 정책에서 주거와 정신건강을 보조적 영역이 아닌, 삶의 질을 구성하고 사회 진입을 돋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제언] 파편적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 접근 : 삶의 질을 높이는 입체적 정책 설계로의 전환

- 통계 결과는 청년 문제가 단일 영역의 대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인구·일자리·주거·정신적 건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ISSUE BRIEFING

vol.334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688004
ISSN 2508-688X